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5년 11월 11일 · 제331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중국의 "일대일로", 장기적인 해운산업 성장 동력
2. 2015년, 글로벌 교통 · 물류 분야 M&A 호황
3. 중국, '북극항해지도집' 발행
4. 알리바바, '싱글스데이' 대응위해 빅데이터 분석

| 물류시장동향 |

1. 모로코, 5대 주요 항만 개발 계획
2. 자루비노항 냉동수산물 처리량 증대 계획

| 공지사항 |

1. 북방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나진항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
2. 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방안 세미나 개최
3. 중소 ·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중국의 "일대일로", 장기적인 해운산업 성장 동력

- 해운산업은 한동안 침체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, 중국의 일대일로(One Belt, One Road) 계획이 장기적으로 해운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
 - COSCO Ma Zehua 회장은 세계 무역의 침체와 이전 호황기(2003-2008년)의 산물인 선박과잉 등으로 향후 2-3년간 해운산업의 뚜렷한 개선 여지는 없다고 밝힘
 - 이러한 선박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, 현재의 신조가격 하락을 해운경기 회복 시 기회로 보고 있는 일부 선주들의 계속된 발주 욕구가 해운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함
- 아울러 일부 금융리스회사의 금융 프로그램이 이러한 신조선 발주 욕구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, 추가적인 선박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
 - 반면, 벌크와 컨테이너부분은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라 기록적인 최저운임 상황에 놓여 있음
 - BDI(Baltic Dry Index)는 2015년 상반기 500-600선을 유지하고 있으며, 아시아-유럽항로 운임은 TEU당 150달러까지 하락한 상태임
- 그러나 COSCO Ma Zehua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"일대일로" 계획이 이러한 해운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함
 - 우선, "일대일로" 계획은 아시아, 유럽 및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와 무역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함
 - 해운선사는 해상실크로드 구축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, 육상 실크로드(Land bridge) 구축에 따른 내륙운송량 증가도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힘
 - 이는 해운기업이 단순히 해상운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, 향후에는 Sea & Rail 등 복합운송까지도 아우르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
- 또한, "일대일로" 계획과 연계되어 항만과 물류센터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기회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COSCO와 같이 해운, 항만운영, 물류 등과 같이 업무영역이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특히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함
 - COSCO의 경우 "일대일로" 계획에 포함된 그리스 피레우스항(Piraeus)에서 이미 컨테이너 2선석을 운영 중에 있으며, 이 항만은 지리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2014년 전년대비 13.3% 증가한 3.6백만TEU를 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
 -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근 국가의 물류네트워크 확대 계획을 잘 활용하기 위해 대형 물류기업의 육성이 시급하고, 우리 관점의 치밀한 참여 전략 수립이 필요함

자료 : <http://www.lloydslist.com>, 2015.11.06.

김근섭 부연구원
051-797-4662, gskim@kmi.re.kr



2015년, 글로벌 교통·물류 분야 M&A 현황

- PwC에 의하면 2015년 9월까지 글로벌 교통·물류 분야 M&A¹⁾가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며 2006년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함
 - 2015년 9월까지 총 979억 달러 규모의 M&A가 성사되어 전년 동기간의 631억 달러 대비 55% 증가하였으며, 3분기에 성사된 M&A는 총 44건에 전체 거래규모는 288억 달러를 기록함
 - 특히, 2015년 3분기에 성사된 M&A 중 건당 거래규모가 10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인 초대형 M&A는 6건으로, 이는 3분기 M&A 거래규모의 63%를 차지하는 183억 달러임
 - M&A 증가세는 전체적으로 기업규모 증대, 영업 역량 강화, 운송 네트워크 구축 및 지리적 범위 확대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주도함
 - M&A 사업 투자자 중 재무적 투자자 비중이 48%, 전략적 투자자인 물류기업과 해운기업 및 관련 서비스 기업이 각각 23%와 34%를 차지함
- 최근 교통·물류 분야의 M&A는 초국경 M&A가 주도하고 있는데, 전체 M&A의 약 55%를 차지함
 - 이중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의 M&A가 48%에 이룸
- 2015년 9월까지의 M&A 규모는 2014년 전체 규모를 이미 넘어섰으며, 물류, 운송, 해운 및 관련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교통·물류 분야 M&A는 향후에도 지속 성장이 예상됨
 - 지역별로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M&A 실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, 이는 중국의 강력한 M&A 추진에 기인함
 - 아시아 지역의 M&A는 주로 로컬 시장을 대상으로 한 M&A라는 특징을 가지며, 핵심 역량 강화, 기존 기업 운영과 추가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발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
 - 중국의 경제가 비록 하향 추세에 있으나 절대적인 성장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, 향후에도 M&A와 같은 비유기적 성장(inorganic growth)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- 전체적으로 교통·물류 분야의 초국경 M&A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적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
 - 따라서 선진국의 물류 관련 기업, 재무적 투자자는 성장세가 매우 높은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M&A를 계속 확대할 전망이다
 - 우리 물류기업들도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간 M&A 추진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및 초국경 M&A를 통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

자료 : www.logisticsmgmt.com, 2015.11.0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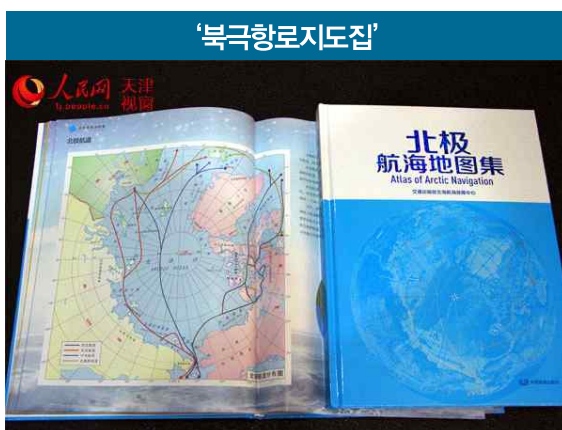
김은우 전문연구원
051-797-4772, hisgrace@kmi.re.kr

1) 거래규모가 5천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인 M&A.



중국, '북극항해지도집' 발행

- 지난 10월 29일 중국 교통운수부 북해항해보장센터(NGCN)가 중국 최초로 '북극항해 지도집(Atlas of Arctic Navigation)'을 발행함
 - 동 지도집은 중국 국내 및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도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, 북극지역의 자연·인문 지리, 항로, 항만, 해도, 응급구조서비스, 법률 체계, 국제 관련 조직 등 북극 항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함
 - 동 지도집은 북극지역 항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, 정책결정, 해운기업의 경영전략, 북극지역 과학연구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가치를 지님
 - 북극항해보장센터에 따르면 북극항로의 개통은 중국의 '해양강국' 및 '일대일로' 전략 추진과 연관이 있으며, 향후 정치·경제적으로 중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
- 한편 지난 10월 3일 COSCO그룹의 용성(永盛)호가 교통운수부의 지원 하에 제2차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성공적으로 완수함
 - 7월 22일 장쑤성 장인(江阴)항에서 9,300여 톤의 강재를 실고 출발한 용성호는 북동항로(Northeast Passage)를 통과하여 8월 18일 스웨덴 바르베리(Varberg)항에서 화물을 하역한 후 다시 벨기에 앤트워프항, 독일 함부르크항을 거쳐 10월 3일 텐진항으로 복귀함
 - 용성호는 2013년 중국 타이창(太倉)항에서 로테르담항까지 1차 시범운항에 성공한 데 이어, 금번 '왕복' 운항까지 완수함에 따라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재확인함
 - COSCO그룹의 안전기술감독부 Cai Meijiang 총경리에 따르면, COSCO가 현재 북극항로 운항 횟수 증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



자료 : www.022net.com



자료 : dl.sina.com.cn

자료 : www.022net.com, 2015.10.29 / www.americanshipper.com, 2015.11.3

김세원 연구원
051-797-4775, ksw@kmi.re.kr



알리바바, ‘싱글스데이’ 대응위해 빅데이터 분석

- 싱글스데이(singles day)로 불리는 올해 11월 11일 하루 동안에만 약 3억 7,500만 건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주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
 - 쇼핑과 무관했던 싱글스데이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서 국경절 연휴(10월초)와 연말 쇼핑 시즌 사이에 독신남녀를 위한 징검다리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시작되었음
 -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물류 플랫폼인 차이나오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2억 7,800만 건의 주문이 싱글스데이 하루 동안에 발생했으며 올해는 3억 건이 넘는 주문이 예상되고 있음
 - 차이나오는 하루 동안 발생하는 대규모의 화물을 처리하면서 중국 전체의 물류 및 택배 서비스의 처리용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

자료 : ChinaFotoPress

- 알리바바는 대규모 물동량 발생에 따른 효과적인 물류 처리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사용할 계획임
 - 차이나오의 CEO인 Tong Wenhong씨는 물류 산업을 위한 데이터 기술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, 올해는 빅데이터가 국경간 화물 운송 및 특송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
 - 차이나오는 싱글스데이에 주문되는 상품의 50% 정도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음
 - 국가우정국의 사무총장인 Han Ruilin씨에 따르면 쇼핑대목 기간에 1억 4천건에 달하는 특송운송이 발생했는데, 이는 전년대비 약 40% 가량 증가한 수치임
 - 올해의 싱글스데이 행사는 7번째이며, 작년 매출 규모는 Taobao 및 JD.com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영향으로 571억 위안(약 90억 달러)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
 - 차이나오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쇼핑 특수를 위해 180만 명에 달하는 배달기사가 고용될 예정으로, 많은 수의 물류 회사, 차량, 로봇 및 항공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

자료 : www.wantchinatimes.com, 2015.10.28.

이홍원 연구원
051-797-4783, hongwon@kmi.re.kr



물류시장동향

모로코, 5대 주요 항만 개발 계획

- 모로코는 2030년까지 5개의 주요 항만을 건설할 계획임
 - 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 허브로 활약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며, 이번 건설을 통해 항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예정임
 - 또한, 모로코의 무역 효율성 및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이번 계획을 통해 Nador, Kenitra 및 Dakhla에 최신식 항만 시설이 구축될 예정임
- 모로코의 대외무역은 98% 이상이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는 연간 1억 톤에 달하는 물량임
- 이번 개발을 통해 모로코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며, 자국의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 2015.11.2

신수용 전문 연구원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자루비노항 냉동수산물 처리량 증대 계획

- 자루비노항은 연간 11만 톤까지 냉동수산물 처리량을 확대할 계획임
- 자루비노항에서 처리되는 냉동수산물은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과 중국시장으로 수출되는 것임
 - 중국으로의 냉동수산물 수출은 러시아 국가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임
- 자루비노항은 화물운송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 다른 항만보다 경쟁력을 갖추
 - 자루비노항은 러시아, 중국, 북한 3국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에 유리함
 - 자루비노항이 자유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에 있어 통관 및 철도연계운송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

자료 : www.portnews.ru, 2015.11.9.

이하림 연구원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



북방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나진항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에서는 아래와 같이 ‘북방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나진항 활용 방안 세미나’를 개최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일시 : 2015년 11월 24일(화), 14:00~18:00
- 장소 : (울산) 울산MBC컨벤션 아모레홀
- 주최 : 외교부
- 주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
- 후원 : 울산항만공사, 울산시
- 세미나 프로그램
 - 북방물류 시장의 여건변화와 물류협력 방안
 - 중국 1대1로 및 AIB 출범에 따른 나진항 활용 국제물류 협력 프로젝트 발굴 제안
 - 북방시장 연계 해륙복합 물류체계 구축방안
 -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및 물류분야 실적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남북 항만 및 한러 항만 복합물류 체계 구축방안 제시
- ※ 세부 프로그램 별첨, (발표자 및 토론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참가신청 : 2015년 11월 22일(일)까지
 - 신청방법 :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(hwangyh@kmi.re.kr)로 송부
- 참가문의 : 황윤희 연구원(051-797-4786, hwangyh@kmi.re.kr)
- ※ 본 세미나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,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 방안 세미나 개최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에서는 아래와 같이 ‘한중 FTA 연계 가치사슬 창출방안 세미나’를 개최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일시 : 2015년 12월 1일(화), 09:40~12:00
 - 장소 : (서울)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
 - 주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
 - 교육 프로그램
 - 한중 FTA 소개 및 전략적 활용 방안
 - 기존 FTA와 한중 FTA의 차이점 소개와 한중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 제시
 - 한중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소개
 - 한중 FTA 협정 내용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
 - 참가신청 : 2015년 11월 29일(일)까지
 - 신청방법 :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(bora62@kmi.re.kr)로 송부
 - 참가문의 : 손보라 연구원(051-797-4781, bora62@kmi.re.kr)
- ※ 본 세미나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,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중소 ·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 ·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●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· 중견기업
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 · 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●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 · 센터 · 창고, 항만 · 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투자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· 지사 · 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●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· 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- 현지 경제 · 무역 · 인프라 · 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 · 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

-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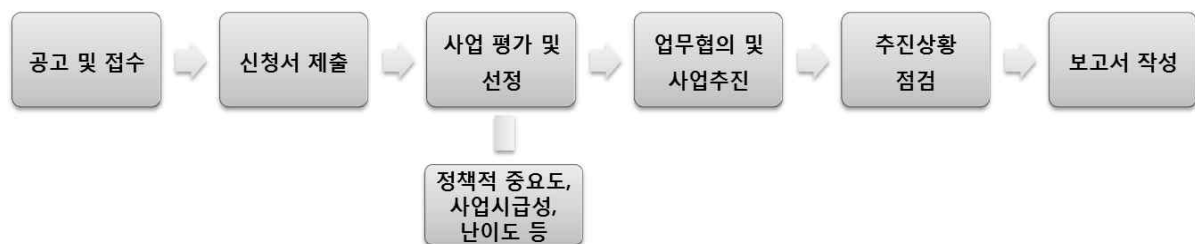
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 - ※ 담당자 : 김은우 전문연구원(hisgrace@kmi.re.kr), 손보라 연구원(bora62@kmi.re.kr)

-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 :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·시급성·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·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·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김은우 051-797-4772 / 손보라 051-797-4781)로 문의
 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- 사업 추진절차





별첨 1

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업 종	
	대표자		종업원수	
	소재지			
	자본금		매출액 (전년도)	
	사업자 등록번호		설립일자	
지원요청 내용	국가/지역			
	관련 사업			
	문의사항			
신청자	부서		Tel	
	직위		Fax	
	성명		E-mail	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		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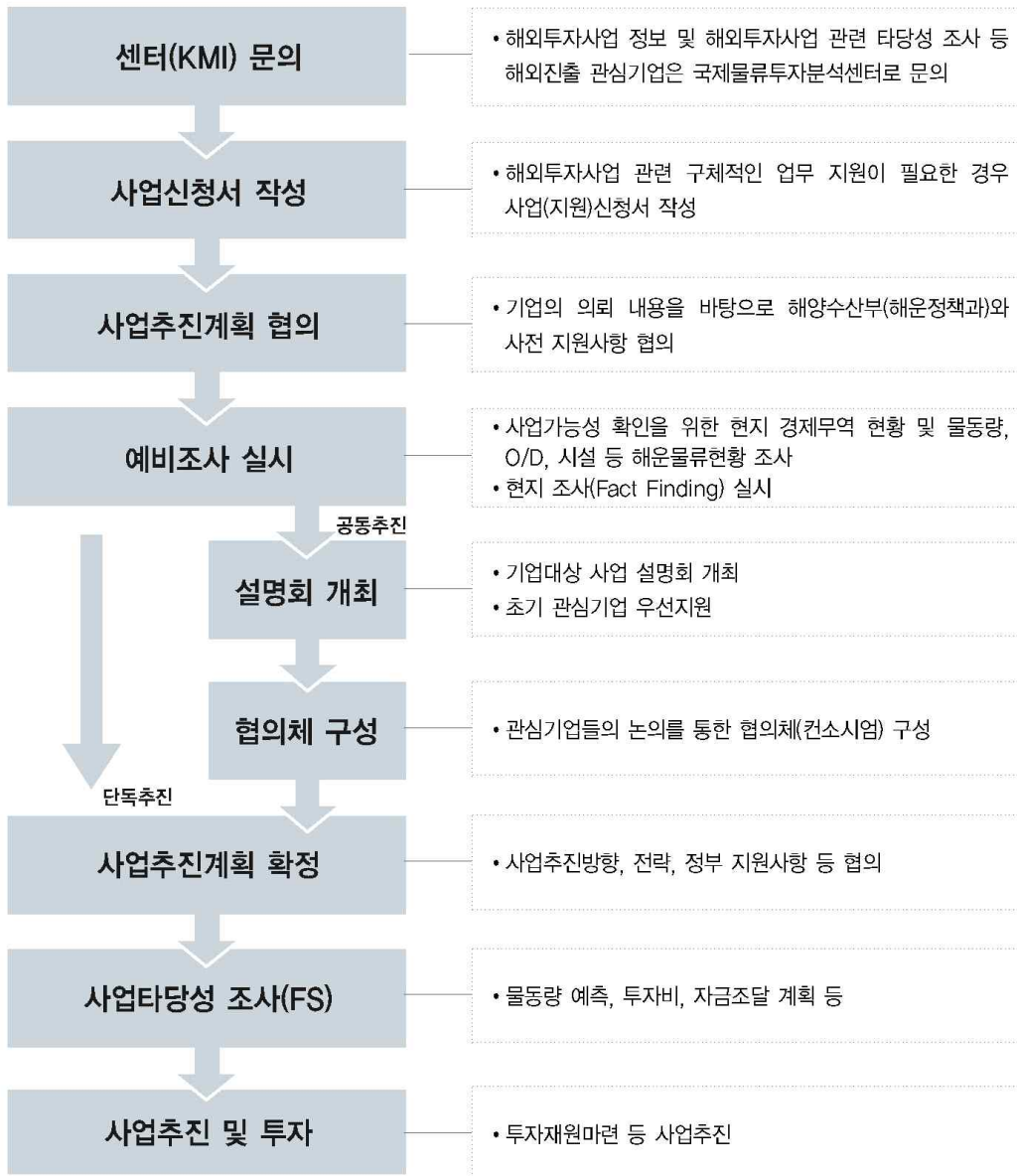
별첨 2

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업 종	
	대표자		종업원수	
	소재지			
	자본금		매출액 (전년도)	
	사업자 등록번호		설립일자	
조사대상 사업개요	사업명			
	국가/지역			
※ 별첨 자료요청 (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공동조사 대상 사업 주요내용을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5~10쪽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·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· 사업의 목적 · 사업 세부내용 (대상지, 사업 분야, 사업규모, 사업방식 등) · 사업추진계획 · 현지시장 조사계획 · 기타 현안사항				
지원요청 내용	※ 필요시 별첨 자료로 제출가능			
신청자	부서		Tel	
	직위		Fax	
	성명		E-mail	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				
첨부서류 목 록	※ 공동조사 대상사업 주요내용 및 지원요청 내용 별첨자료			



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